

# 지역사회가 돌보는 정신장애인

박 수 천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장

## 정신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정**신 질환자 하면 대부분이 낫지도 않는 병에 걸려 가족들이나 고생시킬 터이니 격리된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데서 한평생 살다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더욱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해서 일반인과 같이 사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들이다. 정신질환자가 먹을 치료약 하나 제대로 없고, 정신병원마저 흔치 않았던 때는 혹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치료제도, 병원도, 전문인력도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을 죄수처럼 감금해 두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곳이 너무도 많다. 무허가 기도원이나 열악한 정신요양시설만이 아니고 어엿한 정신병원조차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면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의 뿌리깊은 편견이 숨어 있다.

우리 나라의 정신병원은 61개소로 3만 2천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65개소로 1만 7천여 명이 보호되어 있다.

그 외에 부랑인 및 장애인시설,



무허가 기도원 등에도 파악되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이 민간정신병원은 962일, 정신요양시설은 2,526일로 미국의 평균 입원기간 63일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장기간 입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도 급성환자를 제외하곤 개방병동에서 사회적응훈련을 시켜야 하고, 낮 병동을 돌려 집에서 출퇴근하며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제 겨우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다.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왜 필요한가?

우리 나라는 정신병원에서조차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는 환자 외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정신장애인이나 퇴원해서 가족과 함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한 많이 있다.

정신질환은 적절한 투약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 열악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보다 지역사회 관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들의 무지와 이웃들의 편치 않은 시선이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리의 주립병원은 '78년도부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법

으로 막아 버렸다. 미국은 '50년대 중반 공공병원 입원환자가 전체병상의 절반을 차지했을 시점에 탈원화를 시도하여 치료건수의 3/4을 비 입원치료로 전환했다.

우리 나라 정신장애인은 불행하게도 폐쇄된 병원에 장기 입원되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가 관리되는 경제적 모델을 제시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사업이 시범지역을 확대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했다.

우선,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공공보건조직이나

있다.

이런 일은 정신과 전문의나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꽤 있다. 물론, 전문의가 바람직하나 보건사식을 가지고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라면 더욱 좋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모든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1명씩 수련을 시키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정신보건센터도 14개 시·도에서 1개소씩 시범운영 중이다.

##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재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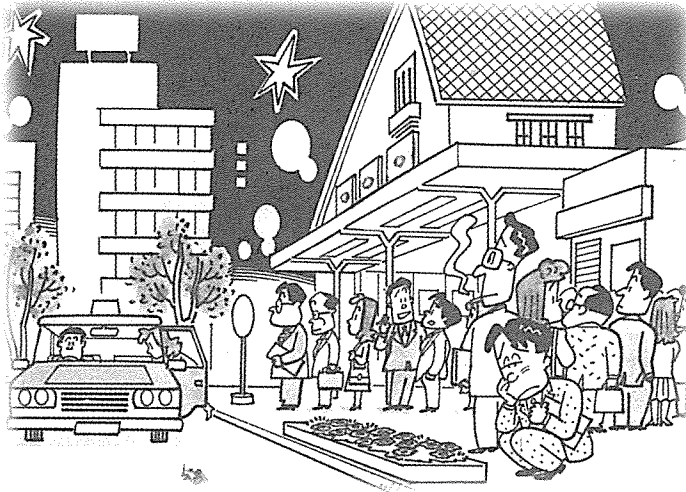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지역별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99년 3월 현재 11개소가 운영중이다.

생활훈련·직업훈련 그리고 주거공간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주거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주거시설은 10인 이하의 정신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비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이 더 이상 장기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라며, 정신보건관계 전문가들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솔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72



있거나 집에서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하고 골방에 갇혀 있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치유하는 제도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다.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은?

불과 2~3년 전부터 우리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시범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난도 치료라고 엄두도 못 냈던 정신질환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원치료가 아닌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지도자, 의료보호 환자를 통해 용이하게 대부분의 만성 질환자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 본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상담과 교육으로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응급조치를 위해 연락처를 남기고, 평상시 투약관리 요령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1차적 기능은 한 것이다.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별로 치료방법을 집중 논의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도